

가사문학 발원지·전국 최다 작가 배출

장흥 문학특구 된다

郡-중앙대 산업협력단 공동 추진

57만㎡ 부지에 문학공원 등 조성

가사문학의 발원지이자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현대문학 작가를 배출한 장흥군에 문학특구가 조성된다.

장흥군은 지난 7월 중앙대학교 산업협력단과 공동으로 문학특구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경제부에 문학특구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문학특구는 대덕읍 연지리와 관산읍 신동리, 안양면 기산리 일대 57만8천517㎡ 부지에 조성되며 장흥군은 1단계로 사업비 19억원을 들여 부지

매입에 착수했다.

문학특구에는 문학비공원과 석탑테마공원, 문학식물원, 문예관 등의 문학테마공원이 조성되며 청정해역인 득량만 일대 13만여평에는 문학기행 답사객들이 관광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문학패밀리파크가 건설된다.

또 가사문학 발원지와 서편제, 천년학 등 지역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소재로 제작된 영화촬영 현장을 체험

■장흥 지역 문학·영화 원작 배경지

위치	작품 배경지
부신면 내안리	김복춘 작가, 통시 (연)의 작품무대
회진면 덕산리	한승원 작가 소설 (포구) <불의 말> (월보라) 산실
장흥읍 신동리	한승원 원작 (이재이재 바리이재) 산실
용산면 상발리	이청준 원작, 임권택 감독 영화 (축제) 주 무대
회진면 진목리	이청준 작가, 소설 (선학동 니그네) 주 무대
대덕읍 가림리	이청준 소설 (눈길) 산실
관산읍 신동리	이승우 작가, 소설 (섬섬) 무대
용산면 포곡리	송기숙 작가, 소설 (녹두장군) 배경지
회진면 회진리	김재현 작가, 시조 (김나무의 추억) 산실
대덕읍 분토리	김영남 작가, 시 (푸른 밤의 여로) 산실
장동면 만년리	이대훈 작가, 시 (눈물 속에 고래가 산다) 산실
유치면 봉곡리	이청준 소설 (흰옷) 배경지
장흥읍 남동리	이청준 소설 (과채) 배경지

터가 설립되며 국내 최고 상급의 문학상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각급 학교와 문학기행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장흥출신 문인들의 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해 해외에 소개하는 사업도 벌이게 된다.

장흥지역은 이청준과 한승원, 송기숙 등 70여명의 유명 문인들을 배출, 전국 각지에서 문학 체험을 위한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장흥군 산림으로 돈 번다

50여ha 녹차단지 등 개발

장흥군이 산림을 활용한 소득자원 개발에 나섰다.

장흥군은 장흥읍 행원과 부산면 금자, 관산면 지정리 등에 50여ha의 야생 녹차단지를 조성했다.

또 용산면 월송에 두릅과 오갈피를 20ha를 심는 등 산채류 재배단지도 조성한다.

이밖에 숲 가꾸기를 통해 생산되는 부산물을 톱밥으로 가공해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고흥읍~도양읍 4차선 확·포장 마무리
고흥군 고흥읍과 도양읍을 연결하는 국도 27호선 18.9km 구간의 4차선 확·포장 공사가 13일 준공됐다. 지난 2001년 6월에 착공된 이 공사는 1천466억원이 투입돼 인터체인지(IC) 6개소와 간이 휴게소 3개소, 교량 27개소 등이 설치됐다. 이번 개통으로 거리는 1.1km 줄어 들고 통행시간도 25분에서 14분으로 단축됐다. 한편 녹동항과 소록도, 거금도를 연결하는 공사는 오는 2011년 12월 완공된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농번기 '급식도우미' 재추진

나주시, 항구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나주시가 선거법 논란으로 중단했던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나주시는 13일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의 항구적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나주시는 지난 9월 여성 농민들의 일손을 덜기 위해 농번기 때 새참이나 점심 등을 대신 지어주는 급식 도

우미 파견 사업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시 선관위가 조례나 지침 등이 없는 상태에서의 인건비 지원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제동을 걸어 시행 한 달여 만에 중단됐다.

시가 입법 예고한 조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급식이 가능한 주민이 20

명 이상이고 자체적으로 음식재료 조달이 가능한 마을로, 신청을 받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대상 마을로 선정되면 '음식 도우미'가 파견되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시가 지원한다.

나주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법적 시비를 없앨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구례 잔수농악 전국대회 첫 금상

'농업인 품물경연대회' 신촌 마을 주민 47명 밤낮 없는 연습 결실



구례 잔수농악(사진)이 지난 9일 폐막된 '2007 전국 농업인 품물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농림부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시·도 대표 15개 팀이 경연을 벌였으며 처녀 출전한 구례 잔수농악보존회(회장 김대진)가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12월 설립된 잔수농악보존회는 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61세로 구례읍 신촌마을 주민 47명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은 고유 문화유산인 잔수농악을 살리기 위해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농악연습을 해왔다.

특히 연습장으로 사용해 오던

섬진강 게이트볼장이 지난 9월 태풍 '나리' 피해를 입자 회원들이 손수 복구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구례 잔수농악은 조상 대대로 전승되고 있는 마을농악으로 두동강이, 돌이뱅뱅, 중중모리(웅매개경) 등 다른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가락을 갖고 있다.

구례 잔수농악은 지난 8월 문화관광부에 의해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사업'으로 확정됐으며 학술연구용역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책임연구원 이경엽 교수)가 맡고 있다.

한편 잔수농악보존회를 이끌고 있는 김대진 회장은 지난 2005년 '제 32회 남도문화제'에서 개인상을 수상했으며 좌도농악 체계를 규명해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례=김동희기자 dhkim@

"녹차로 건강 챙기세요"

보성군, 자매결연 대구 북구에 녹차 2천여kg 전달

보성군이 자매결연을 맺은 대구 북구에 지역 특산품인 녹차 2천여kg(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을 기증했다.

보성군이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고 자매결연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대구 북구에 지원한 녹차는 1회용 티백 170여만개에 달한다.

대구 북구청은 이 녹차를 1천135상자에 나눠 관내 28개 중·고교 3만여명의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보성군은 지난 2006년부터 자

매결연 자치단체인 대구 북구와 부산 연제구 학생들에게 녹차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 지자체들도 매년 보성 지역 농·수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한편 보성군 새마을 부녀회(회장 윤공임)는 지난 9·10일 이틀간 대구 북구 새마을 부녀회(회장 안막례) 회원 40여명을 초청, 여성초 가공공장 등 농·특산품 생산현장 방문 및 농촌 체험행사를 열었다.

/보성=안규일기자 gjahn@

광산구 하남 80m 광로 지하보도 청소년 문화예술 공간으로 꾸민다

광산구 하남에 있는 80m 광로의 지하보도에 청소년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된다.(사진)

광산구 자원봉사센터(소장 오정균)는 지난 10일 광주시 청소년활동 진흥센터와 광산·하남중, 광주예술고 지원을 받아 1차 공간 꾸미기 작업을 벌였다.

오는 17일에는 지하출입구 계단을 한지 벽화로 꾸미고 지하통로 벽면은 테마별 유화 그림으로 장식한다.

또 바닥에는 코팅 페인트가 칠해져 주민이나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의 직접 참여로 방치됐던 지하보도 공간을 열린 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킨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문화예술 공간을 확대·조성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

장학생선발

매년 10여 명의 장학생 선발하는 장학사업에 지원하세요 (지원기간: 11월 14일 ~ 11월 21일)

지원대상: 전남도내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자격: 1. 전남도내 고등학교 재학생 2. 학업성적이 우수함 3. 장학금 사용에 동의함

지원방법: 1. 신청서 작성 2. 면접 3. 장학금 지급

문의처: 전남도청 기획조정실 장학팀 (061-270-1111)

겨울방학 블리큰 영어캠프

겨울방학 동안 영어 실력을 높이고 싶으신가요? 블리큰 영어캠프가 여러분의 겨울방학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특징: 1. 원어민 강사 2.小班 수업 3. 다양한 체험 활동

수강료: 10만원 (수업료, 교재료, 입학금 포함)

문의처: 블리큰 영어캠프 (061-270-1111)